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1주일
제34권 39호(가해) 2014.8.24

[묵상]



성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는 그리스도

하느님은 나의 인생 안에서
좋은 시절, 기쁜 순간들에 체험되어지는 분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은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쓰라린 고통의 순간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불안 해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때에,
나의 모습이 모두 무너지고 깨어져버려
더 이상 희망할 것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 하느님은 나에게 새로이 시작할
힘과 용기를 자비로이 베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서 나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바로 하느님 당신께로의 결단을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는
살아 있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며
은총의 순간임을 어렵잖이나마 알아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느낌 안에서 하느님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느님의 모습은 바로
살아 계신 하느님이요,
베드로가,
교회가 고백하는 바로 그 하느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생)이유한 돈보스코, 천영훈 프란치스코, 정애나 세라피나 & 정애릭, 매도우 아라 & 성호제 시몬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아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김옥순 소피아, 전시웅 요한, 박순희 로사, 김차욱 요셉 & 김복님 마리아, 이명자 로사, 강신봉 안드레아, 강태랑
	(생)석순영 아네스, 조성윤 클라라 & 조혜윤 테레사, 배기엽 클레멘스 & 배난군 세레나, 김준호 크리스토퍼, 윤희동 안토니오 & 윤남열 세라피나, 김준형 매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 22,19-23

화답송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
시웁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1,33-36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
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복 음 마태오(Matthew) 16,13-20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
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홍접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임당	목마른 사슴	209	193
봉헌	409	261	261
성체	주품예	309	282
파견	401	249	200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선택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3,1).

제1장 성령은 누구신가?

2. 예수님과 성령

1) 예수님과 함께하신 성령

예수님의 온 생애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 그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다(루카 1,35; 마태 1,18
-20 참조). 그분의 공생활도 성령과 함께 시작된다. 세례자 요
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은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성
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고하였고(마태 3,11 참조),
이 예고대로 성령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내려오셨다.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
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
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
는 아들이다.’” (마르 1,10-11).

성령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곧 광야로 내보내셨고(마
르 1,12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악마를
물리치신다(마태 4,1-11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고향 나
자렛 회당에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하신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
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
-19).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예언이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으므로써(루카 4,21 참조) 당신께
서 성령과 기름부음을 받은 대시아라는 것을 암시하신다.

마태오 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주님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영을 받아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시는 분이리
고 소개한다(마태 12,18 참조). 성령에 의해 태어나시고 성령
으로 가득 차 활동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
시면서,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드리신
다(루카 10,21 참조).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도 성령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예수
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 없는 당신 자신
을 하느님께 바치셨다”(히브 9,14). 예수님의 십자가상 자기
헌신이 성령의 활동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느님의 아들이심에 ‘거룩한 영’에 의
해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한다(로마 1,4 참조). 베드로 1서도
예수님께서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
으셨습니다.”(1베드 3,18) 라고 증언한다.

<◆계속>

영광 그 뒷면에 감춰진 십자가

이제야 조심스레 하는 말이지만, 책이든 방송이든 한때 우리나라를 온통 휩쓸었던 ‘힐링’(healing) 열풍이 저는 참 불편했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될 것이고 통하는 법이니, 비관적인 생각일랑 접고 ‘괜찮아, 잘 될 거야’라는 긍정적 생각을 하자는 ‘막연한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잘못된 사회구조를 탓하는 건 그저 개인능력이 미달되는 루저(낙오자)나 하는 것이니, 빨리 마음 고쳐먹고 그럴 시간에 자기 계발에 전념하던지, 마음 수양을 하라는 충고였습니다.

물론 이런 힐링 담론들이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각자 마음먹기에 달린 ‘개인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사회적 책임’에는 눈감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런 위로는 그저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설탕물’ 정도에 불과한 것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는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십자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인미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야 신랑 신부가 기쁨에 젖어 모든 게 밝고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우리 인생은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분량만큼의 어둠과 고통도 함께 있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양지가 있으면 그만큼 다른 한편에서는 어둠 속의 그늘이 있고, 오늘처럼 이런 아름다운 꽃이 있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이를 받쳐 주는 어둠의 뿌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얻는 것(得)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맛 뒤에 감춰진 쓴맛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남편과 아내,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선배 신자들이 후배 교우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이 늘 영광만 있

는 ‘꽃방석’만은 아니라는 것, 기쁨과 보람 이면에는 십자가의 고통(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함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신앙을 가짐으로써 늘 만사형통에 기쁨의 은총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만큼의 고난과 십자가가 함께 주어지며, 오히려 그런 십자가를 통해 사람이 성숙되고 단단히 영결어지는 것이겠지요.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냉큼 베드로가 나서서 모범 답안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지만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대답 속에는 ‘하느님의 아들이로서의 위엄과 영광’과 같은 밝은 쪽만 생각했지, ‘그리스도라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아 죽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미래 운명, 어둠 면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 남들이 말해 놓은 정답을 인용하는 대답도, 신학적인 대답도, 추상적인 대답도 안 됩니다.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대답해 주세요.

◆ 이명찬 신부 / 오금동 성요셉성당 주임

나와 너의 차이

내가 하면 검소고 남이 하면 궁색이고,
내가 하면 맹모삼천지교고 남이 하면 위장전일이고,
내가 하면 글로벌이고 남이 하면 도피유학이고,
내가 하면 뚜렷한 자기주장이고 남이 하면 시건방이고,
내가 하면 농담이고 남이 하면 실언이고,
내가 하면 조연이고 남이 하면 감히 니가,
하며 부르르 떨게 되네

◆이영 아네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팅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 / 카슨 구역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 9월 8일 (월) : 아침미사 오전 8시 30분
저녁미사 오후 7시 30분
- 미사예물 : 사무실에서 접수중
- * 당일 새벽미사는 없습니다.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8월 23일(토) 오후 6시 두명의 어린이가 유아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할수있도록 기도합니다.

- 이유한 돈보스코 ● 천영훈 프란치스코

◆ 주일학교 견진반 학생모집 (2014~2015학년도)

새학년도 견진교리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를
받고싶은 학생들은 아래 견진 교리교사에게 신청하여 주세요.

- 대상 : 주일학교 10~12학년
- 수업일시 : 9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반
- 장소 : 2층 교사실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린다 정 ☎(310)756-9333

◆ 요셉회 8월모임 및 "장수사진 촬영" 안내

- 일시 : 8월31일(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 강당
- 촬영 봉사자 : 한장환 안토니오, 김선제 바오로
- 문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당일 음식과 음료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부참석 환영합니다.

◆ 주일학교 교사모집합니다

성당의 미래인 아이들과 함께 사랑과 신앙으로 봉사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학생 복사단 신입회원 모집

- 대상 : 3-4학년 주일 학교 학생
- 자격 : 첫 영성체를 한 주일학교학생
부모가 열심히 천주교신자인 학생
학생본인이 복사단에 가입하고 싶어할것
- 문의 : 담임교사-신동윤 빈첸시오
vincentshin1971@gmail.com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제38차 남가주 여성 영어 꾸르실료 .. 본당에서 2명 참가

- 일시 : 8월 28일(목) ~31일 (주일)
- 참가자 : 정혜정 켄마 & 오보나 보나
- 장소 : 포모나 Cursillo house
- 지도 : 이유진 유스티노 신부
- 문의 : kccmsc@gmail.com
- * 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모회 펀드레이징... '냉동 왕만두'를 판매합니다

- 일시 : 토요 특전미사, 주일미사후(아침, 학생, 낮)
- 수익금은 성모회와 자모회의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 4개 \$10 (빨리 매진될 수 있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24일 :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 8월31일 :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강미순 권태만 김관기 김성택 김우용 김원호 김정희 김찬구 김효진 나경흠 박영희 박현주 방정복 성낙호 신순철 안태갑 엄정자 오세원 오신제 이근태 이복임 이태옥 임연조 정규숙 지정한 최원석 최의수 최희숙 황철수 이크리스	강미순 권태만 김관기 김우용 김원호 김찬구 김효진 나경흠 박현주 방정복 성낙호 신순철 안태갑 엄정자 오세원 이복임 이일길 정규숙 지정한 최원석 이크리스
합계 : \$ 3,085	합계 : \$1,335
주일미사 헌금 : \$2,776 성모승천대축일 : \$ 11,483	감사헌금 : \$400(석순영, 송경옥)

공지사항

◆ 본당 교우들께 알립니다.

교적에 기재된 주소나 전화번호등이 최근 바뀐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오셔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성마가렛 메리본당 제32회 로미타 페어

- 일정: 9월5일(금)~7일(주일)
- 장소: 성마가렛메리 성당
25511Eshelman Ave. Lomita
- 행사내용: 각종놀이기구와 게임 & 음식판매
- 경품권 판매: 백삼위본당 8월24일(오늘주일)
- 문의: ☎(310)326-3364

◆ LA 성 아그네스 천주교회: 제 26기 커피교육안내

- 일시: 9월7일(주일) 낮 2시~10시,
9월11일(목) 저녁 6시~10시
- 교육방법: 양일중 하루 강의듣고 30회실습
- 수강료: \$200
- 문의: ☎(323)731-4433 (사무실)

◆ 제3기 성 요셉 아버지학교

- 일정: 9월 7, 14, 21, 28일 (4주일)
- 장소: LA 성아그네스 천주교회
- 문의: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 면형강학회 (순교자 영성)

- 선조들의 삶을통해 자신의 뿌리를 알아가고 정체성을
찾아 성숙한 신앙의 증거자가 되기위한 공부와 기도과정
- 첫 강학일: 9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오후 7시30분
- 장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내 순교자영성센터
16276 California Ave. Bellflower, CA 90706
- 문의: ☎(562)461-8100

◆ 제18회 남가주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작품전

- 리셉션: 9월 6일 (토요일) 오후 5시~8시
전시회 기간: 9월 6일~19일
- 장소: Lee & Lee Gallery
3130 Wilshire BL #502
L.A., CA 90010
- 수익금의 일부는 작은예수회에 성금합니다
- 문의: ☎(213)365-8285

☺ 서로 인사 합니다. ☺

노공동체 7월 반모임

노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율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오신재 매히털다 991-4838 8/8(금) 오후 6시 성당회의실
	2	김찬구 요한 701-6343	민원희 안나 701-6343 8/9(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539-3377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8/15(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박인식 토마스 953-9597 8/16(토) 오후 6시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정남형 알베르토 991-8556 8/9(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김현숙 벨라멧다 617-1132 8/9(토) 오전 10시30분
200-0512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1	김준 방지거 625-3312	엄영숙 마리아 625-3312 8/22(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8/15(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8/8 (금) 오후 7시 성당
508-2912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1	정병옥 율리아 404-1607	황안젤라/임철편마 404-1607 8/11(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213 272-8393			
하머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749-3151 8/10(주일)오후 1시 하머시티파크
	3	1,2반과 같음	
989-9077			
P. V. 남경희 베네딕다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고규재 체칠리아 531-0123 8/8(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8/8(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8/9(토) 오전11시De Portola 팍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귀란 아베스 617-3568 8/12(화) 오전 10시 30분 성당
384-3289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	--

**124위 시복특집< 1 > 윤지충 바오로(1759~1791)
권상연 야고보(1751~1791)**

...저는 결코 이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주교를 믿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지충 바오로는 전라도 진산의 유명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종사촌 정약용 요한을 통해 천주교신앙을 알게 된 그는 스스로 교회 서적을 구해 읽으며 교리를 익혀 1787년에 인척인 이승훈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편 윤지충의 이종사촌으로 이웃해 살던 권상연 야고보는 윤지충이 탐독하던 책을 빌려 보고신앙에 눈을 떠 얼마 후 윤지충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1791년 조정은 윤지충과 권상연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1790년 북경의 구베아(A. Gouvea) 주교가 조선 교회에 내린 지침에 따라 윤지충이 권상연과 함께 신주를 불사르고 전통 예절에 따른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산 관아에 자수한 윤지충과 권상연은 여러 차례의 설득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진리임을 역설하며 “절대로 신앙만은 버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주 감영으로 이송된 두 사람은 갖은 문초와 혹독한 형벌을 겪으면서도 “천주를 큰 부모로 삼았으니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그분을 흠송하는 뜻이 될 수 없다.”며 당당히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전라 감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유혈이 낭자하면서도 신을 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주의 가르침이 지엄하다고 하면서 임금이나 부모의 명을 어길지언정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칼날 아래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1791년 12월 8일,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는 ‘예수, 마리아’를 부르며 마치 잔치에 가듯 형장으로 걸어가 망나니에게 목이 잘려 순교하였습니다. 한국의 첫번째 순교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친척들이 아흐레 만에 관장의 허락을 얻어 순교자들의 시신을 수습했는데, 물그릇에 담긴 물이 꿈꾸어는 엄동설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구(形驅)에 묻은 피가 방금 전에 흘린 것처럼 맑고 선명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경탄하며 재판관들의 오판에 항의하였고 두 순교자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교우들은 여러 장의 손수건을 순교자들의 피에 적셨으며, 그 가운데 몇 조각을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병으로 죽어 가던 사람들이 이손수건을 만지고 나온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 서울대학교 홍보국 위임

<전례 상식>

‘보편 지향 기도’는 어떻게 바치면 되나요?

☞ 보편 지향 기도는 세상 구원에 대한 사명을 지닌 공동체의 간청이기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폭넓은 기도여야 합니다. 첫째 부분에서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즉 하느님 백성이 된 사람, 모든 교우, 교회 전체, 세계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시야를 넓혀 전 인류, 즉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부분에서는 긴급하고 필요한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것은 모든 차원의 공동체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면 됩니다. 넷째 부분에서는 우리 공동체, 예를 들어 본당이나 지역 공동체 또는 각종 단체 등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위 해 기도합니다.

◆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신부님, 저는 미사 시간에 주로 눈을 감고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성찬례때도 눈을 감고 하는데 이것이 틀린 건가요? 사실 눈을 뜨고 하니 사람들의 움직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분심이 생기더라고요.

☞ 주님을 온 마음으로 모시려는 자매님의 열정이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분심이 들어서 눈을 감아야 미사에 집중할 수 있다니, 안타깝습니다. 생각건대 분심은 심중팔구 누군가의 ‘말’에 들지 않는 표정이나 자세 때문이라 짐작이 됩니다. 반갑고 어여쁜 사람 때문에 생길 리가 만무하니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최면을 걸 듯 눈을 감고서 홀로 미사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누군가가 ‘싫고’ ‘싫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돌아난 마음 뿌루지부터 치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사에서의 분심은 반드시 척결시켜 할 신앙인의 악습입니다. 성령께 간곡히 기도해야 할 사항입니다. 흠어져 달아나는 마음과 외람된 생각에 불들리곤 하는 잡념을 싹 씻어 내어 주님께로 고정시켜주시기를 청하십시오.

사제는 공동체를 대표하여 전례를 거행합니다. 그런 만큼 미사에서는 본인의 집중도와 함께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또한 매우 소중합니다. 공동체적 전례인 미사에서 “주로 눈을 감고 집중”하는 모습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미사는 홀로 심취하는 개인 신심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하는 전례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 장재봉 신부 /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